

# 3. 적용학습

수능특강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끄을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육도 썼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팔목이 시도록 매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잡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1. 이 시에서 국토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모성적(母性的), 혹은 여성적 이미지를 빌어 표현한 연으로 짝지어진 것은?

일반 변형 문제 1

- ① 4연과 5연
- ② 4연과 6연
- ③ 5연과 6연
- ④ 5연과 8연
- ⑤ 6연과 8연

2. 이 시가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 ① 낭만적이고 격정적인 분위기
- ② 급박하고 격렬한 율격
- ③ 현실에 대한 태도와 인식
- ④ 자연스러운 모국어 사용
- ⑤ 토속적인 소재의 사용

3. 이 시에서 시상이 급격히 전환되는 연은?

- ① 6연      ② 7연      ③ 8연
- ④ 9연      ⑤ 10연

4. 이 시에서 '봄'을 대하는 시적 자아의 모순된 태도를 암시함으로써 첫 연에서 제기된 물음에 대해서 마지막 연에서와 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시구 둘을 찾아 쓰시오.

5. 다음 중, 시적 자아가 갈등 상태에 놓여 있거나 모순된 심정에 사로잡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 ①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 ②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 ③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 ④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 ⑤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6. 이 시에 사용된 주요 심상은?

- ① 직유에 의한 시각
- ② 은유에 의한 시각
- ③ 묘사에 의한 청각
- ④ 상징에 의한 청각
- ⑤ 은유에 의한 청각

7. '푸른 하늘 푸른 들'이 상징하는 것은?

- ① 아득한 이상 세계
- ② 몽환 속의 도피처
- ③ 전통적 고향
- ④ 지상의 낙원
- ⑤ 현실적으로 안주할 공간

8. 비통한 망국의 한이 육체적으로 형상화된 구절을 찾아 쓰시오.

9. 불의에 억압당한 현실을 통탄한 연을 찾아 첫 어절과 끝 두 어절을 쓰시오.

10. 다음 중, '빼앗긴 들'의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푸른 하늘 푸른 들'
- ②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 ③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 ④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
- ⑤ '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

11.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적 피로감
- ② 황홀지경의 상태
- ③ 정서적 불균형 상태의 인식
- ④ 방향의 길에 대한 슬픔
- ⑤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순간

12. 현재의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나타낸 연은?

- ① 1연      ② 3연      ③ 5연
- ④ 7연      ⑤ 9연

13.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을 형상화한 것 중 정감이 다른 것은?

- ① 가르마 같은 논길
- ② 삼단같은 머리
- ③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
- ④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
- ⑤ 강가에 나온 아이

14. 이 시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상통하는 구절이 제시된 연은?

**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흐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① 1연      ② 2연      ③ 3연
- ④ 4연      ⑤ 5연

15. 이 시의 성격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낭만적    ② 저항적    ③ 참여적
- ④ 상징적    ⑤ 체념적

16. 서정적 자아의 정신적 불균형이 외면적으로 표현된 구절을 찾아 2어절로 쓰시오.

17. 서정적 자아가 바라는 이상적 세계를 상징한 시어를 쓰시오.

18. 서정적 자아의 정서적 상황이 10연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구를 1-4연에서 찾아 5어절로 쓰시오.

19. 1연의 '지금은'에 대한 풀이로 바른 것은?

- ① 상황이 현재에 국한됨
- ② 현실 체념적 심정 토로
- ③ 일제 강점기의 상황 인정
- ④ 현 상황의 미래에의 지속
- ⑤ 과거와의 상반된 사실 지적

20. 이 작품의 내용 심화 과정이 형식을 통해 드러난 것은?

- ① 반복을 통한 강조
- ② 리듬의 변화
- ③ 대립적 시어 배치
- ④ 생략을 통한 암시
- ⑤ 점층적인 시행의 증가

21. 서정적 자아의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 ① 어조의 변화
- ② 진술 형식의 변화
- ③ 문장의 도치
- ④ 화자의 위치 이동
- ⑤ 감각적 심상의 나열

22. 이 시의 전체적 특징과 거리가 먼 설명은?

- ① 시의 형태가 연(聯) 단위로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다.
- ② 시각 심상을 중심으로 향토적 소재가 많이 선택되었다.
- ③ 시적 자아의 갈등이 대칭 구조에 의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 ④ 현실로부터 비롯되는 고뇌로 체념과 탄식의 어조를 드러내었다.
- ⑤ '물음→확인 과정→답'의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었다.

23. 3연의 '입술을 다문'의 속뜻으로 해석되는 단어를 찾아 쓰라.

24. 이 시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운동의 전체적 조망
- ② 감정의 직설적 토로
- ③ 비극적 황홀경예의 분노
- ④ 미래 지향의 역사적 감각
- ⑤ 과거 회상의 감각적 울분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불은 오는가?

(나)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다) ㉞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어.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다오.

(라) ㉞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썼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㉞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옷네.

(마) 고맙게 잘 자란 ㉞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㉞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쁘하다.

(바)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㉞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사)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㉞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아)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㉞살진 젓가슴과 같은 ㉞"부드러운 이 흙"을  
㉞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자)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㉞웃어웁다 답을 하려무나.

(차) 나는 온몸에 ㉞땀내를 띠고  
㉞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㉞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뻐나 보다.

(카)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25. ㉠~㉞<한줄 전체를 말함>중, 함축적 의미와 이미지의 속성에 있어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6. 다음에 제시된 시의 ㉞와 의미상 대응되는 시구를 이 시에서 찾아 3어절로 쓰시오.

보기

그러나 이별을 쓴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㉞님의 침묵을 휩

싸고 돕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27.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② '질문 - 대답'의 형식으로 통일성과 안정감이 느껴진다.  
③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애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④ 현실의 울분과 비애를 자연에 대비시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감을 형상화시킴으로써 화자가 처한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8. (가)~(아) 중, 침묵하는 자연을 통해 역사적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는 연의 기호를 쓰시오.

29. 이 시의 시구 중, (보기)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보기)

이 시는 자연적인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면서 우리의 국토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느끼게 한다.

- ①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②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③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④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30. ㉠~㉞중, (보기)의 밑줄 친 '손님'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보기

내 고장 칠월은 /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 두 손을 함뱍 적셔도 좋으련, //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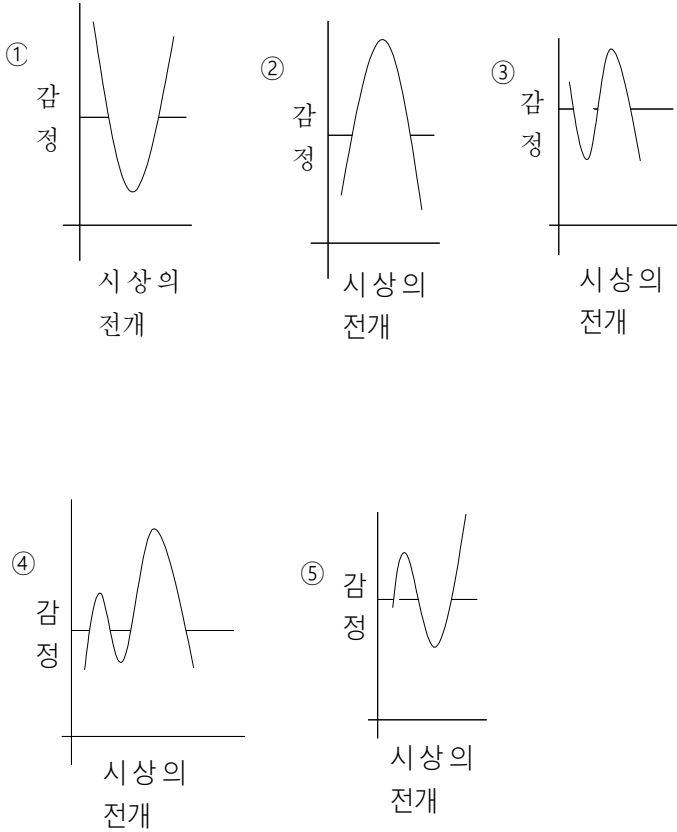
- 이육사, '청포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31. ㉠와 ㉡의 대립적 의미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
|-----------|-----------|---|---|
| ㉠         | ㉡         | ㉠ | ㉡ |
| ① 미래 : 과거 | ② 이상 : 현실 |   |   |
| ③ 정신 : 육체 | ④ 성숙 : 미숙 |   |   |
| ⑤ 순응 : 저항 |           |   |   |

32. 이 시 전체의 어조 변화를 그린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3. 정서적 불균형으로 인한 내면적 갈등이 형상화된 시구를 찾아 쓰시오.

34. (자)에 나타난 화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 ② 자신의 기쁨이 환상임을 깨닫고 있다.
- ③ 조국의 참담한 현실에 울분을 느끼고 있다.
- ④ 의지가 부족한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다.
- ⑤ 봄조차 누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35. (보기1)의 설명을 참고하여, (보기2)의 밑줄 친 시구와 의미상 대응하는 시구를 찾아 쓰시오.

**보기1**  
(보기1)  
이 시의 화자는 봄이 온 국토를 걸으며 기쁨을 만끽하다가 문득 그 기쁨이 공허한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계절의 봄은

왔지만 우리 민족의 진정한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기2**  
(보기1)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나타낸다.
- ②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화하여 표현했다.
- ③ 시적 화자가 다리를 저는 이유로 볼 수 있다.
- ④ 푸른 생명력으로 설움 극복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⑤ 2연의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과 대칭 관계에 있다.

37.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첫 연과 끝 연이 '질문-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로 시적 화자의 의식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각 연의 시행이 점층적으로 길어지는 균형미를 갖추고 있다.
- ⑤ 풍경을 먼저 객관적으로 제시한 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38. 다음 중 (보기)와 같은 마음 상태가 드러난 연은?

**보기**  
3연은 봄이 온 국토에 대한 애정과 국권이 상실된 침통한 심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

- ① 2연    ② 5연    ③ 6연    ④ 8연  
⑤ 9연

39. 다음 중 작품 자체의 의미에만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한 것은?

- ① 이 작품이 쓰여진 당시를 생각하면 '남의 땅'은 국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을, '봄'은 조국의 광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
- ② 이 시를 읽고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되었어.
- ③ 암울하고 답답한 일제 강점하에서 살던 우리 민족의 고통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
- ④ 이 시는 자연적 대상을 살아 있는 듯이 묘사해서 우리 국토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느끼게 하고 있어.
- ⑤ 시인의 정서적 불균형 상태가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는 표현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

40. ㉔에 드러난 웃음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결연한 의지                                      ② 자연이 주는 기쁨  
 ③ 사회에 대한 냉소적 자세   ④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  
 ⑤ 자신에 대한 자조적 절망감

41. ㉓~㉔중, 그 속에 드러난 정서가 다른 하나는?  
 ① ㉓   ② ㉔   ③ ㉓   ④ ㉔   ⑤ ㉓

42. 다음 중 (차)(카)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현실 인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 ② 그러니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돌으라,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 김소월, '바라건대'

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 ③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④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 덮이노라.

- 고은, '눈길'

- 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고덕이며 고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 김남조, '겨울 바다'

43.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질문과 대답 형식의 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② 자연적 소재를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③ 향토적 시어를 통해 민족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함축적 표현보다 설명을 통한 산문적 표현에 치중하고 있다.  
 ⑤ 대조적인 정서의 대립으로 시의 긴장감과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44. 구술 면접 시험에서 '지금은 남의 땅'이라고 표현한 시구에 대해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국권 회복을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②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 의식을 보여 줍니다.  
 ③ 조국의 역사에 대한 화자의 자긍심이 엿보입니다.  
 ④ 미래를 비판하는 화자의 정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⑤ 화자가 현재만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자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45. 이 시에서 정서적 불균형으로 인한 내면의 갈등을 동작으로 형상화한 시구는?

- ①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②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③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④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⑤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46. 이 시에서 '들'과 '봄'의 상징적 의미를 각각 쓰시오.

47. (보기)의 표현을 참고하여 화자의 어조를 설명하시오.

보기

(가)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1. ④ 5연- 삼단 같은 머리, 8연- 살진 젓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흠.
2. ③ 구체적인 현실 인식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준다.
3. ④
4. (푸른 웃음, 푸른 설움)
5. ⑤ '다리를 절며'는 피로,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암시한다.
6. ① 이 시는 직유법과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격정적으로 표현했다.
7. ① '푸르다'의 이미지-희망, 이상 세계를 동경
8. (다리를 절며) 나라를 잃은 설움을 자신의 불구로 표현한 구절이다.
9. (입술을 다문, 해 다오) 불의에 억압당한 상태에서 시적 자아를 이끌어 준 초인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심정이 나타난 부분이다.
10. ②
11. ③
12. ④ 강한 호소력과 삶의 욕구가 나타난 부분
13. ⑤ 향토적 정감과 민족적 정서와 다른 것
14. ② 아득한 이상의 세계가 나타난 부분 암시
15. ⑤
16. (다리를 절며) '다리를 절며'의 "절며"는 내면 정서의 균형이 맞지 않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말
17. (봄) 독립된 조국, 광복을 상징하는 말
18.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몽환적 상태
19. ①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구별짓는 의미가 대조 보조사 '-은'에 나타나 있다.
20. ⑤ 시행의 점층적 증가를 통한 내용의 심화,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자아의 내면 표출, 여성적 심상의 사용으로 국토에 대한 사랑 표현
21. ① 4연에서는 의욕적인 어조이나, 5연에서는 자조적인 어조로 바뀌고 있음에 유의
22. ④ 고뇌가 서린 모습은 발견되지만 자포자기하는 감상적 태도는 아니다. 특히, 마지막 연은 반어로 해석할 때 강한 결의를 읽을 수 있다.
23. (빼앗긴) 일제에 강점된 현실
24. ②
- 25.. ⑤
26. 입술을 다문 하늘
27. ⑤
28. (다)
29. ①
30. ①
31. ②
32. ④
33. 다리를 절며
34. ②
35.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36. ④
37. ⑤
38. ⑤
39. ④
40. ⑤
41. ⑤
42. ②
43. ④
44. ①
45. ⑤
46. 들- 국토, 봄 - 조국의 광복
47.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1연과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현실을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화자의 독백은 비관적 어조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지금은 ㉠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B][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C][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옥도 썼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젓머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젓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D][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E][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20년대 중반에 일부 시인들은 민중의 참담한 상황,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에 주목하면서 민중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이런 점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 ① [A]의 ㉠은 당시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군.
- ② [C]의 ㉡에는 민중의 생명력이, ㉢에는 노동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함의되어 있군.
- ③ [B]와 [D]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변화로 보아, [C]에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도 내재되어 있군.
- ④ [B]의 ㉣에는 화자의 이상이, [D]의 ㉤에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군.
- ⑤ [A]와 [E]의 연관으로 보아, [B]~[D]에서의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 보려는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군.



1. ㉔ 2. ㉕

01 작품의 공통점 파악 [답] ㉔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고, 그와 같은 표현 방식이 작품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파악해야 한다. (가)는 계절적 배경인 '봄'을 통해 봄을 맞이한 국토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화자는 이런 '봄'조차 빼앗길 처지에 놓인 현재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나)는 계절적 배경인 '겨울'을 통하여 서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엄동 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 애착을 보이는 서민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에서 계절적 배경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푸른 웃음, 푸른 설움', (나)의 '차가운 아름다움'은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역설적 상황 인식이 드러난 것일 뿐,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 진리를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다.

③ (가)의 공간적 배경은 '들', (나)의 공간적 배경은 '시내버스 안'으로, 여정에 따른 공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④ (나)에는 '성애꽃', '아름다움' 등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가 행들의 끝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사한 구조의 문장 형태는 운율감을 자아낸다. 그러나 (가)에는 이런 배치가 보이지 않는다.

⑤ (가)에는 '아씨같이', '삼단 같은', '살진 젓가슴 같은' 등 직유적 표현을 통해 봄을 맞은 자연의 모양과 속성을 제시하였으나 (나)에는 '전람회에 온 듯'에 직유적 표현이 한 번만 쓰였고, 그러한 표현이 시적 대상인 성애꽃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 것도 아니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판단 [답] ㉕

[정답이 정답인 이유]

1920년대의 시 문학의 경향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이해해 볼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제시한 것처럼 작품에 나타난 민중의 실상과 노동에 대한 화자의 관점, 화자의 현실 인식을 파악해야 한다. 이 작품을 <보기>를 바탕으로 민중의 생활과 관련지어 감상하면, [A]에는 민중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에 희망이 올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이 나타나 있고, [E]에는 절망적인 민중의 현실에 대한 재확인이나 타나 있다. [B]~[D]에는 민중의 생명력과 노동을 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 그럼에도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현실 인식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B]~[D]에는 비참한 민중의 처지를 바꿔 보려는 화자의 적극적 행동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은 노동할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린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표현한 시구이다.

② ㉔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민중의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고, ㉔은 노동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B]에서 화자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어 꿈속을 가듯 걸어가는데, [D]에서 화자는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으로 인해 자조적 태도를 보인다. [C]에는 안타까움이 내재되어 있기에 [D]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④ ㉔이 화자가 지향하려는 이상적 공간을 드러내는 시구라면 ㉔은 자연이 주는 기쁨과 현실이 주는 슬픔을 동시에 느끼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는 시구이다.

수능특강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끝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니 산 깊은 ㉠**금덥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평도 설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

지문 독해 가이드 - 이 시의 시적 대상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승'이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여승'에 집중해야 한다. 화자는 관찰자적 시각으로 여승의 삶에 대해 설명한다. 평안도 금점판에서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울던 여인, 십 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 일찍 세상을 떠난 어린 딸, 결국에는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삶을 바라보는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찾아보도록 하자.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동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렇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수능 변형 문제 1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나희덕, '못 위의 잠'

지문 독해 가이드 - '못 위의 잠'은 바로 새끼들과 어미가 잠든 동지 옆의 못에서 꾸벅거리는 아빠 제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그러한 제비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제비의 모습이 환기한 아버지의 모습, 그때 화자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리고 그러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화자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일지를 그려 보며 이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자.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광 광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지문 독해 가이드 -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우리가 이 시에서 주목할 대상은 '아버지'이다. 화자는 어머님께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자가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한강교를 지나면서 보게 된 얼어붙은 한강물이다. 겉은 광광 얼어붙었지만 그 안으로 는 부드럽고 여린 물살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화자가 떠올린 것은 아버지와 어린 시절의 가족이다. 화자가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주목하며 이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자.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2.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표 문제)

- ①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②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③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④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⑤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4.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9 학년도 6월 모의평가 23번]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희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1. ㉒ 2. ㉒ 3. ㉓ 4. ㉔

(가) 백석, '여승'

해제: 이 시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스러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절에서 만난 여승의 기구한 삶이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 회상의 내용을 통해 여인이 왜 여승이 되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여인은 남편을 찾아 헤매다 딸까지 죽게 되자 결국 여승의 길을 택한 것이다. 여인의 모습에는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고단했던 삶이 반영되어 있다.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 삶에서 느끼는 서러움 (나) 나희덕, '못 위의 잠'

해제: 화자는 못 위에서 꾸벅이며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며 과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겉으로는 범주가 다른 두 대상을 그리고 있지만, 제비는 바로 화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현재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작은 제비집, 갓 태어난 새끼들, 날개로 동지를 덮은 어미, 못 위에서 잠을 자는 제비는 각각 화자의 유년 시절의 좁은 골목길, '나'를 포함한 아이 셋, 피곤에 지친 어머니, 한 걸음 늦게 따라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응되고 있다.

주제: 유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연민 (다)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해제: 이 시는 어머니에게 말하는 듯한 대화체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화자는 어린 시절 자신을 감싸 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기에 그 사랑이 더욱 절실히 그리울 뿐이다. 이러한 화자에게 여린 물살을 품고 흐르는 한강물은, 바로 어린 시절 화자가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 시에서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고 있는 얼음은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주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1. 작품의 공통점 파악 답 ㉒ (가)에서 시적 화자인 '나'는 여인의 과거와 여인이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못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다)에서 화자는 예닐곱 살 적 겨울,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체험을 떠올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절실히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한강교를 지나면서, 여린 물살을 품고 흘러가는 물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고 있다. 결국 세 작품 모두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㉑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부각시킨 작품은 없다.

㉓ (가)에는 한 여인이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현실이 나온다. 하지만 화자가 이러한 현실을 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아버지가 실직하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화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현실을 여유로운 정신으로 포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㉔ (다)에서는 '어머님'을 청자로 설정하여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는 청자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화체가 쓰였다고 할 수 없다. ㉓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 작품은 없다.

2. 작품의 비교 감상 답 ㉒ (가)는 화자가 여승을 만나 이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삶의 과정을 시간 순(2, 3, 4연)으로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내면보다는 남편을 찾으려 금점판을 헤매던 여인이 딸까지 잃고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삶을 서술하고 있을 뿐 내면을 성찰하지는 않는다. (나)에서 화자는 못 위에서 꾸벅거리는 제비를 바라보며 과거 실업자였던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실업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 그리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화자는 이제야 그때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㉑ (가)에서는 여승이, (나)에서는 제비가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㉓ (가)에서는 '서러워졌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아버지에 대한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㉔ (나)는 '~올까요', '~던가요' 등의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통해 친근감을 주고 있다.

㉓ (가)의 '쿨날같이 늙은 여승, 불경처럼 서러워진 화자,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등에서, (나)의 '못 위에 앉아 꾸벅거리고 있는 제비'로 표현된 아버지, '반쪽 난 달빛'같이 창백한 어머니 등에서 비유적으로 표현된 인물을 엿볼 수 있다.

3.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답 ㉓ ㉔은 '사내(화자의 아버지)'가 가난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초라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오답 피하기 ㉑ 여인은 금점판에서 옥수수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㉒ 여인은 딸이 죽어 버리자 여승이 되기로 생각하고 산절로 온 것이다.

㉓ 과거 실업자였던 아버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세 아이를 데리고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아내를 기다리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㉔ '그렇듯한 집 한 채'에는 아버지의 바람이 담겨 있다.

4.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답 ㉔ 화자는 어린 시절 추위로부터 자신을 따뜻하게 해 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운 것이다. 여기서 화자는 한강교를 지나면서 여린 물살을 품에 안고 흘러가는 한강의 물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얼어붙은 잔등'은 흑한이라는 시련을 막아 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얼음'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아버지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을 추측하게 하지는 않는다.

오답 피하기 ㉑ 어린 시절의 화자는 외풍 때문에 벌벌 떨다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잠들고는 했다. '외풍'은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과 대비되며 아버지의 사랑을 더 부각시켜 주고 있다. ㉒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보았다고 하는 화자의 말 속에서 죽은 후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윤회론적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㉓ '얼음'은 '아버지'를, 얼음 안에서 무사히 흘러가는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들'을 형상화한 것이다. ㉔ 일반적으로 얼음은 차가운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시에서 '얼음'은 '아버지'를 '흑한'을 막아 주는 존재로 형상화한 시어로서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수능특강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모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우발인가 해서 내려 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저러서  
 공주처럼 지쳐서 도라온다.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1.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색과 흰색의 색채 대조가 선명하다.
  - ② 대상을 객관적 심상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 ③ 거대한 바다와 연약한 나비를 대비시키고 있다.
  - ④ 바다와 나비를 사상적으로 깊이 관련시키고 있다.
  - ⑤ 간결하고 단호한 어조로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다.
  
2.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이론적 바탕은 서구 모더니즘이다.
  - ② 자연 친화의 목가적 시풍이다.
  - ③ 주관적 해석이나 판단을 배제한다.
  - ④ 선명한 감각성이 돋보인다.
  - ⑤ 나비의 절망은 근대를 맞는 자가 겪는 운명적 좌절감으로 볼 수 있다.
  
3. 이 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비의 좌절은 바다의 '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나비의 좌절은 '나비'가 '공주'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 ③ 물결에 젖은 '나비의 날개'는 가혹한 현실에 패배한 시적 자아의 초라한 모습을 암시한다.
  - ④ '초생달'은 어떤 초월적 입장이나 비판적 지성을 가리킨다.
  - ⑤ '청무우발'은 나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대상이다.
  
4.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감정이 표면에 직설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 ③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있다.
  - ④ 피상적인 세계 인식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나비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 ⑤ 미경험된 세계와 경험된 세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5. 이 시에서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기법은?
  - ① 은유적 상상력      ② 상징과 비유      ③ 진술의 어조
  - ④ 대상의 해체      ⑤ 시각적 심상의 대비

일반 변형 문제 1

6.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는 바다와 나비의 대조를 통해 냉혹한 현실과 나비의 좌절된 꿈을 노래하고 있다.
  - ② 바다, 청무우발, 초생달과 흰 나비의 색채가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느낌을 준다.
  - ③ 사상이나 관념보다는 회화적 심상을 중시하는 모더니즘의 특성을 보여 주는 시이다.
  - ④ 낭만적인 감정이 나비와 바다라는 동화적 상상력의 산물과 결합되어 잘 형상화된 작품이다.
  - ⑤ 현대 문명의 무생명성과 불모성을 '바다'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문명 비판적 성격을 보여 준다.
  
7.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연 친화적 태도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을 노래하였다.
  - ② 현실적 상황의 열악함에 정면으로 맞서려는 용기를 읽을 수 없다.
  - ③ 주관적 해석이나 판단을 배제한, 담담한 묘사적 필치가 돋보인다.
  - ④ 날카로운 정도의 회화적 특성과 문명 비판적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 ⑤ 근대라는 거대하고 엄청난 물결 앞에 무력함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8. 이 시가 낭만적인 꿈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면, 이 시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냉혹한 현실에 맞서는 주체의 의지
  - ② 냉혹한 현실에 대한 패배 의식
  - ③ 냉혹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욕망
  - ④ 냉혹한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지
  - ⑤ 냉혹한 현실을 헤쳐 나가려다 좌절된 꿈
  
9. 이 시에서 '나비'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의 상(像)을 나타내는 시어는?
  - ① 수심    ② 바다    ③ 물결    ④ 꽃    ⑤ 초생달
  
10. 1연의 상황과 관련이 깊은 속담은?
  - ①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노릇한다.
  - ② 우물 안 개구리격이다.
  - ③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④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 ⑤ 우물가에서 송충 찾는다.
  
11. 1연의 '수심(水深)'의 함축적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심오함    ② 광대함    ③ 광활함    ④ 위험함    ⑤ 난삽함
  
12. 각 연의 '~다'로 끝나는 어미가 갖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서술적 진술을 통해 서사성 부각
  - ② 평서형 종결 어미로 평범한 일상 표현
  - ③ 통일성의 확보로 시적 긴장감 획득
  - ④ 각운을 통한 음악적 효과의 획득
  - ⑤ 간결하고 단호한 어조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

13. '바다'가 내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제3의 세계
- ② 한없이 넓은 어머니의 품
- ③ 현실을 초월한 이상향의 세계
- ④ 생명을 잉태한 원초적 젖줄
- ⑤ 근대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모험과 시련

14. '나비'에 대한 시인이 태도는?

- ① 연민 ② 비판 ③ 조롱 ④ 냉혹 ⑤ 무관심

15. 이 시에서 두드러진 심상은?

- ① 촉각적 심상 ② 청각적 심상 ③ 후각적 심상
- ④ 미각적 심상 ⑤ 시각적 심상

16. 이 시에서 주로 보이는 것과 같은 감각적 경향이 두드러진 시구는?

- 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②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③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④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
- 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17. 이 시의 경향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주지적 ② 감각적 ③ 상징적 ④ 회화적 ⑤ 논리적

18. 시상으로 보아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미지끼리 묶은 것은?

- ① 나비 - 날개 - 꽃 ② 바다 - 물결 - 나비
- ③ 나비 - 바다 - 초생달 ④ 바다 - 날개 - 나비
- ⑤ 나비 - 물결 - 초생달

19. 다음 중 '나비'에 담긴 시적 의미와 유사한 것은?

- ①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 모아 진 아가의 / 작은 손아귀 안에 / 당신을 찾게 해 주십시오.
- ②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③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 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 ④ 아랫목에 모인 /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 강아지 같은 것들아. /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 내가 왔다. / 아버지가 왔다.
- ⑤ 자랑스러운손 화려한 춤 재주도 / 한 옛날의 꿈조각처럼 흐리어 / 늙은 무녀(巫女)처럼 나비는 한숨진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하늘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睡眠)의 강(江)을 건너  
 빛 뿌리는 ㉡기억(記憶)의 들판에,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날으다가  
 깎깎한 절벽(絶壁),  
 헤어날 수 없는 미로(迷路)에 부딪히곤  
 까무라쳐 돌아온다.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어서면  
 이비규환하는 화약(火藥) 냄새 소용돌이.  
 전쟁(戰爭)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연자색 안개의 베일 속  
 파란 공포(恐怖)의 강물은 발길을 끊어 버리고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해후(邂逅)는 언제나 잇갈리는 초조(焦燥)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꿈에서 지금 막 돌아와  
 꿈의 이슬에 축축히 젖어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아가야!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나) 아무도 그에게 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靑무우발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다) 비바람 험상궂게 거쳐 간 추녀 밑—  
날개 찢어진 늙은 노랑나비가  
맨드라미 대가리를 물고 가슴을 앓는다.

찢긴 나래에 맥이 풀려  
 그리운 꽃밭을 찾아갈 수 없는 슬픔에  
 물고 있는 맨드라미조차 소태 맛이다.

자랑스러운손 화려한 춤재주도  
 한 옛날의 꿈조각처럼 흐리어  
 늙은 巫女처럼 나비는 한숨진다.

20. (가),(나),(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나비의 이미지는?

- ①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
- ②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 지친 존재
- ③ 무생물과 대립적인 생명을 상징는 존재
- ④ 인생 무상을 느끼는 늙고 병든 존재
- 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존재

21. (가)에서 시인이'나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존재의 모습이 구체화되어 나타나 있는 것은?

- ① 산아 그대는 역센 뿌리도 모르는 자인가/  
 슬한 거목들은 스스로의 나이테만 자국하다  
 끝내 흔적도 없이 쓰러져 갔으며/  
 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은 포효하다  
 주둥이마저 화석으로/  
 그 큰 품안에서 차갑게 곧어져 갔느냐.
- ②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진 아가의 /작은 손아귀 안에/  
 당신을 찾게 해 주십시오.
- ③ 사랑이니, 눈물 따위에 /  
 바둥거리는 연민의 거리를 지나//

무연한 꽃가의 얼어붙은 바람 소리에/문득 /  
발길을 멈춰 선 사슴.

- ④ 울먹은/상복의 미소//  
비린내 낭자한 강바람에/모시치마 나부끼듯/  
간드러진 허리 허리
- ⑤ 병상에 누워서 기척없이 엄습해 오는 /  
찔레 향기 같은 너를 들이마신다.  
너를 들어마시며 정신없이 쫓다가/  
멈칫 돌아서게 하는  
우뚝 치솟은 그대 환상의 장미

22. (나)의 [ ]안의 시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시어를  
(가)에서 찾는다면?

- ① ㉠ 수면의 강    ② ㉡ 기억의 들판
- ③ ㉢ 내일의 바다    ④ ㉣ 날아가는 파랑새
- ⑤ ㉤ 공포의 독수리

23. (나) (다)는 공통적 주제 의식을 지니고 있지만 표현의  
중점은 다르다. 그 차이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 |       |     |      |     |
|-------|-----|------|-----|
| (나)   | (다) | (나)  | (다) |
| ① 이미지 | 정서  | ② 사상 | 정서  |
| ③ 이미지 | 사상  | ④ 어조 | 율격  |
| ⑤ 율격  | 어조  |      |     |

24. 다음 시의 밑줄 친 부분과 상통하는 시상을 담은 부분을  
(나), (다)에서 찾으려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  
나. / 관이 향기로운 너는 /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구나. // 물속  
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 내고는 / 어  
찌할 수 없는 향수에 / 슬픈 모가지를 하고 / 먼 데 산을 바라본  
다.

- ① (나)의 2연    ② (나)의 3연
- ③ (다)의 1연    ④ (다)의 2연
- ⑤ (다)의 3연

1. ④ 시각적 심상만 강조될 뿐 주관적 판단이나 해석은 덧붙이지 않고 있다.
2. ② 이 시는 서구 이미지즘의 영향을 받은 감각적, 문명 비판적 작품이다.
3. ⑤ '나비'가 추구하는 궁극적 대상은 '꽃'이다.
4. ② 이 시는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서글프다, 시들다' 등의 어휘가 나타나지만 그것이 비유적 대상물을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다.
5. ⑤ 이 시의 주제 형상화를 위해 쓰인 기법으로는 나비와 바다, 초생달의 시각적 심상의 대비를 이용한 회화적 효과를 들 수 있다.
6. ④ 모더니즘 계열의 시로 주지적 특성을 보인다.
7. ①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청록파의 시적 특성이다. 이 시는 근대라는 거대하고 엄청난 물결 앞에 무력함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인의 의식과 동경의 대상을 향해 돌진했다가 '물결에 저러' 좌절하고 돌아오는 존재에 대한 회한을,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담담한 묘사적 필치로 노래한 작품이다. 또한, 좌절감을 주는 바다가 냉혹한 현실을 암시하는 점으로 볼 때, 꽃이 피지 않음이 불모성을 뜻함을 추론할 수 있다.
8. ⑤
9. ④ '나비'가 좌절된 대상은 꽃이 피지 않는 것이다.
10. ③
11. ④ 2행의 '무섭지 않다'로부터 함축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12. ⑤ '~다'로 끝맺는 간결하고 단호한 어조는 지은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만 할 뿐 주관적 판단 및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13. ⑤ 연약한 나비와 광활한 바다와의 대비를 통해 '근대'라는 엄청난 위력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1930년대 한국 모더니스트의 자화상이 나타나 있다.
14. ①
15. ⑤ 이미지즘의 경향으로 회화성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16. ④ 이미지즘의 경향으로 회화성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17. ⑤
18. ③ '꿈 - 시련 - 좌절'의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다.
19. ③ 나비는 순진하고 가냘프며, 낭만적인 꿈을 가진 존재이다. ① 정한모, '가을에', ② 신경림, '갈대', ③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④ 박목월, '가정', ⑤ 윤근강, '나비'
20. ② (가) 정한모의 '나비의 여행', (나)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다) 윤근강의 '나비'에 나오는 나비의 궁극적인 의미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삶과 여행에 지쳐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21. ② (가)에서 '나비'는 '아가'와 동일한 존재이다. '아가'는 순결 무구한 존재의 상징이며 시인은 '아가'의 이미지에서 인간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다. '나비'는 순수를 찾아 나서는 '아가'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①은 홍윤기의 <산아>, ②는 정한모의 <가을에>, ③은 김창직의 <사슴>, ④는 진을주의 <행주산성>, ⑤는 임성숙의 <장미>이다.
22. ⑤ (나)에서 '바다'는 나비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시련의 상징이다. (가)에서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시어가 바로 '공포의 독수리'이다. ① ② ③은 힘든 여정을 의미하지만 나비가 공포와 위협을 느끼는 대상은 아니다.
23. ① 같은 제재와 주제를 지닌 (가) (나)이지만 (나)는 초생달 시린 그림자가 허리에 비치는 지친 나비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늙은 무너처럼 한숨 짓는' 인생의 애상의 표현이다.
24. ④ <보기> 시는 노천명의 <사슴>이다. '늙은 죽속이었던 시절의 향수에 젖어 있는 고고한 사슴'은 시인 자신의 표상이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운 꽃밭을 찾아가지 못하는 슬픔에 젖어 있는 나비'로 그려져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1연 :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는 나비  
㉢청(靑)무우 발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 2연 : 시련과 좌절감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3연 ; 바다의 냉혹함과 나비의 비애

1.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간결하고 단호한 어조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푸른 빛과 흰 빛의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에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풍부한 정감을 느끼게 한다.
  - ⑤ 사상이나 관념보다는 회화적 심상을 중시하는 모더니즘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2. 이 시에서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와 상징을 통해 주제 의식을 구현하고 있다.
  - ② 서사적 구성을 취함으로써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 ③ 점층적인 반복으로써 주제의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 ④ 음악성을 강조함으로써 주제를 형식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⑤ 풍자와 해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실 비판적인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3.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나비'의 속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모함            ② 천진함   ③ 가련함
  - ④ 연약함           ⑤ 대범함

4. 이 시의 어미가 갖는 효과를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속적인 사건을 서술하는 서사성을 부각시키고 있어.
  - ② 간결한 문장으로 통해 대상의 속성을 냉정하게 드러내는군.
  - ③ 단정한 말투를 통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어.
  - ④ 평서형의 종결 어미를 통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담담하게 표현할 수 있어.
  - ⑤ 각 연의 마지막에 각운을 처리함으로써 외형률을 지닌 정형 시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

5.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흰 나비'가 할 수 있는 말을 상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바다와 나비>의 '흰 나비'는 어리숙하고 순진한 낭만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일제 강점기의 근대적 지식인의 표상이라고도 해석된다.

- ①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
  - ② 아무리 나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는 법이야.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 ③ 언젠가는 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꽃이 피는 봄이 오게 될 거야. 그 날을 기다리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야지.
  - ④ 세상은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 이제부터는 이 더러운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갈 거야.
  - ⑤ 어린 시절 내가 살던 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 공해에 찌들어 죽어가는 이 곳을 벗어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6. 이 시의 '바다' (㉡)와 <보기>의 시적 화자인 '바다' (㉢)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쳐.....ㄹ씩, 쳐.....ㄹ씩, 척, 싸.....아.  
나의 짝 될 이는 하나 있도다.  
크고 길고, 넓게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저것은 우리와 틀림이 없어,  
적은 시비 적은 싹 온갖 모든 더러운 것 없도다.  
조따위 세상에 저 사람처럼.  
쳐.....ㄹ씩, 쳐.....ㄹ씩, 척, 튜르릉, 팍.

6

쳐.....ㄹ씩, 쳐.....ㄹ씩, 척, 싸.....아.  
저 세상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에서 꼭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담 크고 순진한 소년배(少年輩)들이,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오너라 소년배 입맞춰주마.  
 처.....ㄹ씩, 처.....ㄹ씩, 척, 튜르릉, 짹.

- ① ㉠과 ㉡는 공통적으로 낭만과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 ② ㉠은 시련과 고통을 주는 존재이지만, ㉡는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이다.
- ③ ㉠은 친구를 갖고 있는 존재이지만, ㉡는 친구가 없는 외로운 존재이다.
- ④ ㉠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으며, ㉡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다.
- ⑤ ㉠은 전근대적 문명을 상징하며, ㉡는 새롭게 펼쳐지는 근대 문명을 상징한다.

7. ㉠~㉡중, 의미하는 내용이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 ④ ㉣                      ⑤ ㉤

8.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보기**

- 나비를 비유하는 말
-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말
- 현실의 시련을 이겨내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를 암시하는 말

※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하시오.

9. 이 시에서 □ □ □ □ 는 순진한 존재를, □ □ □ □ 는 냉혹한 현실을 상징한다.

10. 이 시의 주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 □ □ □ 과 □ □ □ □ □ □ 이다.

11. 이 시는 푸른 색과 흰 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O, x )

12. 시적 화자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 O, x )

- 1) [답] ④ [해] 이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있다. 즉, 시적 화자는 감정을 절제하고 냉정히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
- 2) [답] ① [해] 이 시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은 '연약한 나비'라는 이미지와 '광활한 바다'라는 대조적인 이미지의 활용, 그리고 나비와 바다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이다. 이 작품에서 '나비'는 이 땅의 근대적 지식인들 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어리숙하고 순진했던 낭만주의를 상징하며, '바다'는 냉혹한 근대의 현실을 의미한다.
- 3) [답] ⑤ [해] 이 시에서 나비는 무모하고 천진한 생각으로 바다에 내려가 시련을 겪는 가련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 4) [답] ② [해] 이 시의 평서형 종결 어미는 이 시가 정형시로서 외형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이 시는 자유시이다.), 대상을 냉정히 관찰하여 그 속성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 5) [답] ① [해] '흰 나비'가 근대적 지식인의 표상이라면, '바다'는 근대적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흰 나비는 근대 문명에 대한 낭만적인 동경을 가지고 바다로 갔지만, 바다, 곧 근대 문명이 얼마나 냉혹하고 무서운 곳인지 깨달았다. 따라서, 흰 나비는 험난한 근대 문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낄 것이다.
- 6) [답] ② [해] 최남선은 '바다'를 우리가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모험과 시련, 그리고 동경과 탐색의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김기림은 근대적 주체에게 시련을 주고 환멸을 불러일으키는 근대 문명을 냉혹한 시련의 바다로 형상화하였다.
- 7) [답] ③ [해] '수심'이나 '바다', '물결', '초승달'은 나비에게 시련을 주는 냉혹한 현실을 의미한다. '청무우밭'은 나비가 꿈꾸던 낭만적 현실을 의미하기에 나머지와 의미상 차이가 있다.
- 8) [답] 공주(公主) [해] 이 시에서 '공주'는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정을 잘 모르며 현실의 시련을 이겨내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를 의미한다.
- 9) [답] 나비, 바다
- 10) [답] 동경, 좌절감
- 11) [답] O
- 12) [답]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가)에 나타난 '바다'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것은?
  - 바다는 뿔뿔이 / 달아나려고 했다. // 푸른 도마뱀떼같이 / 재재발랐다. // 꼬리가 이루 / 잡히지 않았다.
  - 살여리 살여리랏다. 바래래 살여리랏다. / 너막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래래 살여리랏다.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비방의 누어 이셔 내 신세를 생각해니, 궂둑이 심난흔더 대풍(大風)이 니러나니, 태산 궂튼 성낸 물결 텃디의 죽옥하니, 큰나큰 만곡취(萬斛舟) | 나모넛 브치이뉘, 하늘의 올라다가 디함(地陷)의 느려지니, 열두발 쌍뚝대는 지이터로 구버 있고, 싣두 북 초석(草席) 돛찬 반돌쳐로 빅불러너, 굵은 우레 존 별악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성낸 고래 동(動)흔 용은 물 속 의셔 희롱하니
  - 산비탈 넉지시 타고 내려오면 /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히 풀 뜯고 /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 오는 /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터.....ㄹ씩, 터.....ㄹ씩, 터ㄱ, 싸.....아. / 저 세상(世上) 저 사람 모두 미우나 / 그 중(中)에서 똑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 담(膽) 크고 순정(純情)한 소년배(少年輩)들이, 재롱(才弄)처럼, 귀(貴)엿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 오나라, 소년배(少年輩). 입 맞취 주마 / 터.....ㄹ씩, 터.....ㄹ씩, 터ㄱ, 튜르릉, 콧.

- <보기>를 토대로 ㉠의 삶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다가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 잘못된 현실에 부딪히자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지향하는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수없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상 세계에 도달하고 있다.
  - 잘못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바다와 나비, 깊은 자기 반성--유문선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이 시는 바다를 자유와 풍요로만 생각했다가 위험임을 깨닫는 나비 한 마리의 모습을 통해 근대와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바다'라는 공간은 위협적인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연약하고 순진한 흰색의 '나비'는 이 위협적인 바다를 '청무밭'으로 오해한다. 청무밭처럼 파란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바다가 자신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바다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는 '나비'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되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3연에 집약되어 있다.

3연의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는 '바다'가 '청무밭'과 같이 풍요로운 현실이 아니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나비는 '서글프고' '시리다'. 여기서 '시리다'는 '나비'의 감정이면서 화자의 감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은 작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화자의 현실 인식으로, 작가가 살았던 193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근대를 추구했던 의식과 지향에 대한 시인의 반성적 인식이 '바다'와 '나비'라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과 형상화 방식은 모더니즘(1)이라는 시인의 문학적 경향과 관련이 깊다. 모더니즘은 20세기 초 서구에서 발생한 하나의 경향으로, 그 분파의 하나인 이미지즘(2) 작가들은 기존의 무분별한 수식 어구의 나열이나 정서의 표출을 비판하면서, 이미지를 시 창작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삼았다. 그들은 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 즉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시의 음악성보다는 회화성을 강조했다. 시인 김기림은 1930년대 초 누구보다도 일찍 그리고 열심히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에 사상적 요소가 불가결한(3)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위에서 이미지 만능과 문명 예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그것이 '바다와 나비'라는 작품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시는 흰색의 나비 이미지와 푸른색의 바다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서 시인의 각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근대 문명을 동경했던 당대 지식인들의 낭만적 꿈이 거대한 근대 문명 앞에서 좌절하고 마는 비극적 현실이다. 또 열렬히 추구해 마지 않았던 모더니즘이란 것이 전능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시인 김기림의 뼈저린 자기반성과 고백이기도 하다. 그러한 통찰과 반성 위에서 '바다와 나비'는 이미지의 탁월한 구사를 바탕으로 한 뛰어난 형상화 수준에 이를 수 있었으니, 이는 문학이 종종 보여 주는 역사적 성취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여휘 풀이)

(1) 모더니즘: 사상, 형식, 문체 따위가 전통적인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창작 태도.

(2) 이미지즘: 시 창작에서 일상어를 쓰고 자유시의 형태를 취하되 리듬과 이미지를 창출하며, 제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집중력을 중시할 것을 주장한 새로운 시 운동.

(3) 불가결한: 없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필요함. 또는 그런 것.

지문 연구

주제: '바다와 나비'에 나타난 통찰과 반성

구성

\* 1문단~3문단: '바다와 나비'에서는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는 '나비'를 통해 근대와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드러냄.

\* 4문단: '바다와 나비'에는 이미지 만능과 문명 예찬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나타남.

\* 5문단: '바다와 나비'는 시인의 통찰과 반성 위에서 역설적 성취를 이룸.

감상 포인트

\* 글쓴이가 이 시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읽는다.

\* 비평의 내용을 시의 해당 부분과 대응시켜 가며 읽는다.

3.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이론을 활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핵심 개념의 장·단점을 밝히고 있다.
- 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대상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4. '김기림'의 의식 변화를 (보기)처럼 정리했을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근대 문명을 추구함. → ㉡ 근대 문명의 속성을 파악함.

- ① 김기림은 ㉠에서 시의 이미지를 중시하며 회화성을 추구했군.
- ② 김기림은 ㉡가 자신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주리라 생각했겠군.
- ③ 김기림은 ㉡에서 무분별한 수식이나 정서의 표출을 비판했군.
- ④ 김기림은 ㉡에서 시에 정신적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함을 깨달았군.

⑤ 김기림은 ㉡에서 문명을 위협적인 것이라 인식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겠군.

5. (보기)를 참조할 때, 표현 기법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작가의 낭만적 꿈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한 종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① 길은 외줄기 / 남도 삼백 리 //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놀 --박목월, '나그네'

② 순이, 벌레 우는 고풍(古風)한 뜰에 /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장만영, '달·포도·잎사귀'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 금(金)으로 타는 태양(太陽)의 즐거운 울림. --박남수, '아침 이미지'

④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⑤ 뺨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신석정, '들길에 서서'

6. 1930년대 후반의 현실과 근대 문명이라는 두 가지 요소와 관련 지어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㉓    2. ㉑    3. ㉕    4. ㉓    5. ㉓

6. 암울한 현실 속에서 위협받고 근대 문명 앞에서 좌절하는 당대의 지식인(작가)을 상징한다.

1. [답] ㉓ [해] (가)에서 '바다'는 냉혹한 현실을 의미한다. '수심'은 그러한 바다의 가혹한 속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㉓은 일본에 가 통신사로 임명된 김인겸이 바다를 건너다 풍량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공포스럽고 무서운 존재라는 점에서 ㉓의 '바다'는 (가)의 '바다'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㉑ ㉒ (가)에는 연약한 나비와 광활한 바다의 대비를 통해 '근대'라는 엄청난 위력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1930년대 후반 한국 모더니스트들의 자화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여기서 '흰 나비'는 김기림을 비롯한 당대 모더니즘 시인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흰 나비가 무발을 지향하다 바다에 날개가 젖어 시련을 겪듯이, 이들 또한 근대 문명의 거대함을 초극하고자 했으나 냉혹한 현실에 좌절을 겪는다.

'바다와 나비, 깊은 자기 반성'

\* 해제: 이 글은 김기림의 대표작 '바다와 나비'를 작가의 의식의 변화나 시대 상황과 관련시켜 논리적으로 분석한 평론이다. 글쓴이는 '바다와 나비'가 1930년대 초 근대 문명을 예찬하고 시에서 이미지를 강조하다가 1930년대 말 근대 문명의 부정적 속성을 깨닫고 모더니즘에 회의를 갖게 된 작가 김기림의 뼈저린 자기반성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작품을 창작하게 된 배경의 이면에 있는 시인의 고뇌와 시어의 의미나 화자의 정서를 연결하여 통찰하면서 작품의 가치를 부각하는 전개 방식이 인상적인 글이다.

3.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㉕

이 글은 '바다와 나비'라는 시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기 위해 '바다와 나비'에서 해당 사례를 논지의 근거로 제시하며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다. ② 다양한 이론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역설적 성취'라는 비평 문구는 있어도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④ 이론적 배경이나 핵심 개념의 장·단점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4. 자료를 통한 심층적 감상 (답) ㉓

'모더니즘은 20세기 초 서구에서 발생한 하나의 경향으로, 그 분파의 하나인 이미지즘 작가들은 기존의 무분별한 수식 어구의 나열이나 정서의 표출을 비판하면서, 이미지를 시 창작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삼았다.'로 볼 때, 무분별한 수식이나 정서의 표출을 비판한 것은 ㉒에서 모더니즘을 추구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그들은 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 즉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시의 음악성보다는 회화성을 강조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청무밭처럼 파란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바다가 자신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다와 나비'에서 '나비'는 궁극적으로는 작가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④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에 사상적 요소가 불가결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바다를 자유와 풍요로만 생각했다가 위협임을 깨닫는'과 '그 위에서 이미지 만능과 문명 예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5. 표현 기법의 이해와 적용 (답) ㉓

㉓은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시각을 촉각으로 전이하였다. '금(金)으로 타는 태양(太陽)의 즐거운 울림'도 시각을 청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놀'은 후각과 시각이 복합적으로 제시된 것일 뿐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② '벌레 우는 고풍(古風)한 들'은 청각과 시각이 복합적으로 제시된 것일 뿐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④ '찬란한 슬픔의 봄'은 모순 형용어로,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는 힘겨운 현실과 이상을 대비시킨 것이다.

6. 소재의 의미 파악

㉓은 위협적인 '바다'를 '청무밭'으로 오해해 날개가 젖는 '나비'를 가리키는데, 이 시에서의 '나비'는 냉혹한 현실에 위협을 받는 1930년대의 지식인(작가)을 상징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의 '그것은 근대 문명을 동경했던 당대 지식인들의 낭만적 꿈이 거대한 근대 문명 앞에서 좌절하고 마는 비극적 현실이다.'를 통해 지식인들이 근대 문명 앞에서 끝내 좌절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 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나)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하늘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睡眠)의 강을 건너

[A] 빛 뿌리는 기억의 들판을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날으다가  
 깜깜한 절벽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 부딪치곤

까무러쳐 돌아온다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어서면  
 아비규환(阿鼻叫喚)\*하는 화약 냄새 소용돌이  
 전쟁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B] 연자색 안개의 베일 속  
 파란 공포의 강물은 발길을 끊어 버리고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해후(邂逅)는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꿈에서 지금 막 돌아와  
 꿈의 이슬에 축축이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C] 아가야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아비규환: 불교에서의 아비(阿鼻) 지옥과 규환(叫喚) 지옥으로,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서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감이 드러나는 배경을 통해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새로운 세계를 찾아갈려는 욕망을 지닌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도 없이 당돌하게 새로운 세계에 몸을 던진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세상의 거대함에 압도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지친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바다와 나비」는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자가 마주치게 되는 운명적 절망감을 나타낸 작품으로도 평가된다.

- ① '흰 나비'가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욕망이 강했기 때문일 거야.
- ② '흰 나비'가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인식한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 일 거야.
- ③ '흰 나비'를 '공주'에 비유한 것은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마음이 고결한 것임을 드러낸 거야.
- ④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 즉 세상의 거대함에 압도되는 상황을 나타낸 거야.
- ⑤ '나비 허리'가 '시리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자가 겪게 된 절망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야.

3 (나)를 [A]~[C]로 구분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아가'가 체험한 꿈 여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 ② [A]에서는 '아가'의 꿈 여행이 밤마다 반복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군.
- ③ [B]에서는 [A]의 꿈 여행 중, 부정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군.
- ④ [C]에서는 [B]를 체험했을 '아가'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군.
- ⑤ [C]에서는 '아가'가 살아가야 할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1. ④ 2. ③ 3. 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해제 | 이 작품은 새로운 세계를 동경했던 화자의 도전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통해 느낀 냉혹한 현실 인식을 그리고 있다. 1연에서 '바다'는 깊은 수심을 지니고 있는 거대한 세계이지만, '나비'는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 순진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2연에서는 바다에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나비를 통해 동경하던 세상에 대한 도전의 결과를 보여 준다. 3연에서는 바다의 무서운 깊이를 알게 된 나비의 지친 모습과 냉혹한 현실 풍경이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시는 바다와 나비라는 강약, 청백의 이미지 대비가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모더니즘 시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구성 |

1연 :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는 나비

2연 : 물결에 날개가 절어 지쳐서 돌아오는 나비

3연 : 바다의 무서움을 알게 된 나비

㉡ 정한모, 「나비의 여행-아가의 방 5」

해제 | 이 작품은 나비의 여행과 아가의 꿈길을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시킨 후, 전쟁의 공포와 아가의 꿈을 은유적으로 대조하여 순수 의식과 휴머니즘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꿈꾸기 전 아가의 현실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꿈을 공포의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아가'가 여행하는 꿈속의 공간은 '깜깜한 절벽', '헤어날 수 없는 미로', '아비규환', '공포의 독수리' 등의 부정적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실 사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2연에서는 꿈의 공포로부터 돌아온 아가와 아가의 안도를 통해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시인의 소망을 보여 준다. 이처럼 이 작품은 나약하기만 한 나비(아가)가 하는 여행(꿈)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비인간적 가치와 무질서를 폭로하고 있다.

주제 | 아가의 꿈을 통한 순수한 인간애의 추구

구성 |

1연 : 밤마다 악몽을 꾸는 아가

2연 : 악몽을 꾀 아가를 위로하는 화자

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는 파란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과 같은 시각적 심상의 시어나 시구를 통해 '흰 나비'가 처한 부정적 상황이 강조되고 있다. (나)에서는 '깜깜한 절벽'과 '연자색 안개', '파란 공포'와 같은 시각적 심상의 시어나 시구를 통해 '아가'가 떠난 꿈속 여행의 부정적 상황이 강조되고 있다. 또 '꿈의 이슬에 촉촉이 젖은 나래'처럼 촉각적 심상의 시구를 통해 악몽을 꾀 아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 모두 어조의 변화 없이 시적 대상의 체험을 묘사 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문장이 쓰이지 않았다.

③ (나)는 '아가야'처럼 영탄적 표현을 사용해 악몽을 꾀 '아가'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환기하고 있지만, (가)에는 영탄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⑤ (가)에는 여전히 찬 기운이 남아 있는 '삼월'을 배경으로 설정해 '나비'의 좌절을 부각하고 있지만, (나)에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배경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③

작품에 대한 평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바다'가 삶의 영역 전체를 의미한다면, '나비'는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개별적 존재에 해당한다. '나비'를 '공주'에 비유한 것은 거대한 세상에 도전하려는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약한 존재임을 표현한 것이지, 그런 사람의 마음이 고상하고 깨끗한 것임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바다'가 새로운 세계라면, '수심'은 그 세계의 깊이와 넓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흰 나비'가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세계를 가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흰 나비'는 새로운 세계인 '바다'를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인 '청무우밭'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흰 나비'가 새로운 세계인 '바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어린 날개'는 '흰 나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지만 세상의 거대함에 압도되어 좌절을 느끼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㉔ '나비 허리'가 '시리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자가 마주치게 된 운명적 절망감을 촉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 한 것이다.

3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㉔

정답이 정답인 이유

[C]는 괴로운 꿈 여행에서 돌아와 기진맥진해 하는 아가를 화자가 품에 안고 위로해 주는 내용으로, 아가를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세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㉑ [A]에서는 꿈을 꾸기 시작한 아가가 즐겁게 날아다니다 결국 절벽과 미로에 부딪쳐 돌아오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 ㉒ [A]의 '밤마다', '부딪치곤'은 아가의 꿈 여행이 밤마다 반복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㉓ [B]는 [A]의 '절벽'과 '미로'에 부딪친 악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아비규환의 전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㉔ [C]에서 화자는 꿈에서 깬 '아가'가 기진맥진한 것이 [B]와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아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수능특강 이시영 '마음의 고향'

수능 변형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떼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  
 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6. 초설(初雪)'  
 (나)무등산 한 활개 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떴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훌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니느뇨  
 - 송순, '면양정가'

1. (가)와 (나)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특정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시 전체의 유기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나)의 화자는 시선을 옮겨가며 여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다양한 소재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나)보다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는 면양정 주변의 경치를 묘사할 뿐, 계절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나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가)도 '초가을', '여름날', '싸락 눈' 등 계절과 관련된 시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형태의 시행이 5번 반복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제월봉, 혹은 제월봉 일대가 보이는 지점에서 시선을 옮겨 가며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③ (가)는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 지붕',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 '그 어린 저녁 무렵' 등의 소재를 나열하며 쓸쓸한 정서를, (나)는 '제월봉', '정자(면양정)', '시냇물', '기러기' 등의 소재를 나열하며 흥겨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나)가 주로 시각에 의존하는 반면, (가)는 시각 외에도 '후두둑', '쿵쿵',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 등 청각이나 공감각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언 허이언 구름 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견우의 노래」-

(나)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때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마을의  
**노오란 초가울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

고  
 [A]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  
 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내 마음의 고향 6 - 초설」-

(다)  
 한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 내 꿈아.  
**만리요양(萬里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선용(鶴駕仙容)\*을 친히 뵈 듯하여라  
 <제1수>

[B] 풍설(風雪) 섞어 친 날에 문노라 **북래사자(北來使者)\***야  
 소해용안(小海容顏)\*이 얼마나 추우신고  
 고국(故國)의 못 죽는 고신(孤臣)이 눈물겨워 하노라  
 <제2수>

구중(九重) 달 밝은 밤에 **성려(聖慮)\*** 일정\* 많으려니  
**이역풍상(異域風霜)**에 학가(鶴駕)인들 잊을쏘냐.  
 이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하시도다.  
 <제7수>

**구렁**에 나 있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을 일 없으니 그 아니 좋을쏘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시름겨워 하노라.  
 <제8수>  
 - 이정환, 「비가(悲歌)」-

- \* 만리요양 : 만리나 떨어진 청나라 요양.
- \* 학가선용 : 신선 같은 얼굴. 학가(鶴駕).
- \* 북래사자 : 북에서 온 사자.
- \* 소해용안 : 왕세자의 얼굴.
- \* 성려 : 임금의 근심.
- \* 일정 : 정말.
- \* 억만창생 : 백성들.
- \* 구렁 : 땅이 움푹하게 파인 곳.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나), (다) 모두 부정적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② (가), (나), (다) 모두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다.  
 ③ (가)와 (나)에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타난다.  
 ④ (가)와 (다)는 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⑤ (나)와 (다)에는 계절적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가 나타난다.
2.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고향'은 심리적 공간으로, [B]의 '고국'은 현실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A]의 '고향'은 '어린 저녁 무렵'과 관련지어, [B]의 '고국'은 '풍설 섞어 친 날'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③ [A]의 '고향'은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 이미지로, [B]의 '고국'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  
 ④ [A]의 '굵은 눈물'에서 '굵은'과 [B]의 '눈물겨워 하노라'의 '겨워'는 정서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⑤ [A]의 '눈물'은 '까닭 모를'과 관련하여, [B]의 '눈물'은 '고신'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3.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문장을 종결하지 않고 끝냄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로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④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처음과 끝을 동일한 표현으로 제시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은 고향 마을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②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은 '후두둑 빗방울'과 함께 계절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③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에는 감각적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 ④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의 정적 이미지는 '흰옷자락'의 역동적 이미지와 대비되고 있다.
- ⑤ '그 어둑한 신작로 길'은 '샤락눈'의 촉각적 이미지와 함께 화자의 심경을 드러낸다.

1. ①    2. ③    3. ①    4. ④

1. [출제의도] 제시된 세 시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일 년에 칠월 칠석 하루밖에 만날 수 없는 연인 견우와 직녀가 이별해 있는 상황을 다루며, 보다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보여준다.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로,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은 화자의 마음속에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는 병자호란이라는 수치와 아픔에 대응하여 지은 시이다. 따라서 세 시 모두에는 화자가 직면한 부정적 상황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두 시의 시구의 의미와 표현을 대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는 어린 시절 까닭 모를 눈물을 흘리던 저녁 무렵의 상황이 아련한 추억으로 제시되고 [B]에서는 추운 겨울날 요양에 잡혀간 왕세자를 생각하며 눈물을 감출 수 없는 화자의 심정이 제시된다. 이러한 [A], [B]의 시적 정황 속에서 각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③에서 [A]의 '고향'은 시간('그 어린 저녁 무렵')과 공간('짙벼늘에 파묻혀')이 통합된 이미지로 볼 수 있으나, [B]의 '고국'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이미지로 볼 수 없다.

3. [출제의도] 두 시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하네'가, (나)에서는 '이제 —아니하고'가 반복되고 있다. 시에서 시구의 반복은 화자의 정서 및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가)에서는 성숙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고난과 시련들이 '—하네'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 강조의 효과가 있고, (나)에서는 시적 화자에게 마음의 고향이 고향의 실체에는 없지만 화자의 마음속에는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발상이 '이제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4. [출제의도] 시의 시구의 의미와 표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시에서는 고향의 모습과 화자의 심경이 계절적인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 있다.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 '그 어둑한 신작로 길'은 각각 고향의 잊지 못할 모습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고향에 대한 화자의 심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의 '흰옷자락 날리며'와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은 역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시구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梧桐)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대상의 동작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수미 쌍관식 구성으로 시상의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③ 섬세한 언어사용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다  
 ④ 춤추는 여승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⑤ 고전적인 소재로 한국적인 정서를 되살려 냈다
- ㉠과 같은 표현 방식이 쓰인 것은?  
 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②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③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④ 내 마음은 호수요  
 ⑤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르름이 된다

- 이 시에서 시적 대상이 지닌 염원이 함축되어 있는 시어는?  
 ① 나비  
 ② 화촉 불  
 ③ 하늘  
 ④ 별빛  
 ⑤ 고깔
- ㉡번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이상적 인간형에 대한 소망  
 ② 세속적인 고뇌를 떨쳐 버리려는 심상  
 ③ 자아 성찰을 위한 자기 연민  
 ④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려는 열망  
 ⑤ 춤을 완성시키려는 노력
-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연에서 역설적인 표현 방법이 보인다.  
 ② 3연에서 승무를 하는 시간과 공간이 드러난다.  
 ③ 4연에서 춤사위가 가장 빨라짐을 알 수 있다.  
 ④ 7연에서 승무를 추는 여승은 세속적인 번뇌가 끝나지 않아 여전히 고뇌하고 있다.  
 ⑤ 8연에서 수미쌍관법을 통해 여운을 남김으로써 감동을 정리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이 시에 쓰인 '하이얀, 나빌레라, 파르라니, 감추오고' 등의 시어들을 사용한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교적 가치 추구  
 ② 시인이 여성임을 강조  
 ③ 선명한 주제 의식 부각  
 ④ 시상 전개에 안정감 부여  
 ⑤ 색채감, 예스럽고 부드러운 느낌 전달
- 이 시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은 표기는 같아도 그 내용은 다르다. 주어진 표를 참조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첫행	마지막행
나비처럼 고운형상→번뇌(춤의 진행과정)→( )	

- ① 사이가 예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변해간다.  
 ② 번뇌를 이겨내고 순수하게 정화된 마음의 상태를 상징한다.  
 ③ 우리말의 음악성과 회화성이 한층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④ 나비의 고운 형상이 강조되어 눈앞에 나비가 날아 가는 듯 하다.  
 ⑤ 별다른 의미가 없이 시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 수미쌍관식 구조를 이용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㉞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란이 깎은 머리  
박사(薄紗)고깔에 감추오고

㉟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며!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나)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티 없는 꽃잎으로 살어 여러 했건만  
내 가슴의 그윽한 수풀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어이할까나

청산 깊은 절에 울어 끊긴  
종소리는 아마 이숫하여이다.  
경경히 밝은 달은  
빈 절을 닳없이 비초이고  
뒤안 으스스한 꽃가지에  
잠 못 이루는 두견조차  
저리 슬피 우는다.

아아 어이하리 내 홀로  
다만 내 홀로 지닐 즐거운  
무상한 열반을  
나는 꿈꾸었노라

그러나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내 맘의 맑은 거울을 흐리노라.

오오, 형체, 이 아리따움과  
내 보석 수풀 속에  
비밀한 뱀이 꿈어리는 형역(刑役)의  
끝없는 갈림길이며  
- 후 략 -

- 신석초, <바리춤>

8. 작품 (가)에서, ㉞~㉣의 풀이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㉞얇은 비단으로 곱게 접어 만든 하얀 고깔은 나비 같구나.
- ② ㉟두 불에 흐르는 빛이 실제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어서 서럽다.
- ③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가을 달밤, 무대는 비어 있다.
- ④ ㉢긴 소매 자락을 힘껏 떨치면서 빙글 돌며 춤을 추는 모습이다.
- ⑤ ㉣세속의 번뇌를 초탈하고자 하는 염원이 "별빛" 속에 함축되어 있다.

9. 작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유와 역설에 의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 ② 잘 가다듬어진 전아(典雅)한 시어를 사용하였다.
- ③ 춤의 완급과 변화에 따라 리듬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④ 춤을 추는 동작의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⑤ 시적 화자가 춤을 추면서 종교적 구도의 자세를 형상화 하고 있다.

10. 전체 8연인 작품 (가)에서 외면 묘사에서 내면표출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은?

- ① 2연
- ② 3연
- ③ 4연
- ④ 5연
- ⑤ 6연

11. 불교적 춤을 제재로 한 (가)와 (나)의 공통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내면보다는 외부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 ② 춤을 추는 이는 남성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춤을 통해 느끼는 전통적 한(恨)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 ④ 세속적 욕망과 번뇌를 승화시키려고 하는 염원이 나타나 있다.
- ⑤ 춤과 자아가 혼연일체가 된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삶의 애환을 잊고자 하고 있다

12. (가)를 '문학의 밤' 행사를 위한 영상 자료를 만들려고 한다. 토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은 고운 외모에 애련함을 일으키는 젊은 여성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아무도 없는 고즈넉한 산사의 뜰을 배경으로 해.
- ③ 한국의 전통적인 곡선미가 느껴지도록 소매나 버선 등 의상의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쓰자.
- ④ 처음에는 밝고 경쾌한 음악을 중반 이후에는 비장한 느낌을 주는 음악을 사용하자.
- ⑤ 춤의 역동적 모습과 유장한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하자.



13. (가)의 시를 읽고 감상한 내용이다.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기술한 것은?

- ① 전통적 소재로 작품을 쓴 것으로 보아 작가는 우리 민족정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
- ② 그런데 이 글을 쓴 시기는 일제 치하 이었을 텐데 너무 현실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닐까?
- ③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아하고 예스러운 어휘를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어.
- ④ 이 글을 쓴 작가는 청록파의 한 사람이었다. 청록파는 모두 자연친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 ⑤ 이 시는 춤을 추는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

14. 위 시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① 승무의 춤동작과 정지, 그리고 다시 춤동작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아름답게 느껴지는군.
- ② 단어에 대한 섬세한 감각과, 우아하고 부드러운 어조가 아름답게 느껴져.
- ③ 전체에 대한 묘사와 세부적이 묘사를 적절히 교차해 실제로 보는 듯 생생하게 느껴져.
- ④ 처음과 끝을 같은 구절로 반복해서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돋보이는군.
- ⑤ 전통적인 시조의 율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서 운율이 안정적이군.

15.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② 내면묘사를 주로 하여 내적 갈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수미쌍관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전통적인 멋과 함께 음악성과 회화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온갖 애육과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이 드러나 있다.

16. 다음 중 보기에 제시된 밑줄 친 시어와 표현 효과가 다른 것은?

보기

산에는 꽃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 ① 하이얀
- ② 나빌레라
- ③ 파르란이
- ④ 감추오고
- ⑤ 고와서

17. 다음 보기 시에 나오는 밑줄 그은 시어와 시적의미가 유사한 것은?

보기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수를 놓는다.  
금실 은실 청홍(靑紅)실  
따라서 가면  
가슴 속 아우성은 절로 갈랐고  
처음 보는 수풀  
정갈한 자갈들의  
강변에 이른다

.- 허영자 '자수'중에서

- ① 고깔
- ② 하늘
- ③ 합장
- ④ 번뇌
- ⑤ 별빛

18. 한 여인이 승무를 통해 내면의 번뇌를 승화시켜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는 시어는?

- ① 별빛
- ② 눈물
- ③ 합장
- ④ 삼경
- ⑤ 고깔

19. 이 시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1-2연은 춤추기 전의 한 여인의 준비 과정
- ② 3-4연은 승무를 추는 무대의 분위기와 유려한 춤사위
- ③ 5-6연은 여인이 춤의 절정에 도달한 순간의 외면 묘사
- ④ 7-8연은 춤을 통해 번뇌를 벗어버린 여인의 맑은 모습
- ⑤ 전체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묘사 중심으로 서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梧桐)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은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20. 위 시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서?

- ① 잘 다듬어진 우아하고 아름다운 시어가 두드러진다.
- ②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한겨울의 깊은 밤이다.
- ③ 황춧불이나 달과 같은 시어들이 그윽한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역설, 영탄, 은유 등의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시의 함축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여승의 울동에 취한 화자는 여승의 내면과 그 고뇌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21. 다음 보기는 위 시에 대한 평론이다. 작품을 이해하는 관점 중 어떤 것과 가장 밀접한가?

보기

그러기에 조지훈의 [승무]를 읽는다는 것은 그 첫머리에 제시된 고깔(의상) -나비(자연) -머리(신체) 이 관계가 어떻게 선택, 결합되어 진전되어 가는가를 추적하고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신체코드로 볼 때 [파르라니 깎은 머리]가 3연에 이르면 [두 볼에 흐르는 빛] (얼굴)이 되고, 5~6연에 오면 손과 발이 춤사위로 변하다. 그리고 다시 그 신체코드는 [복사꽃 뺨]과 [까만 눈동자]로 올라가 본래의 머리부분으로 돌아간다. 또 하늘로 비유된 그 긴 장삼과 사뿐히 위로 올린 외씨버선의 모양은 다시 하늘로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여준다.

- ① 표현론적 관점
- ② 수용론적 관점
- ③ 절대주의적 관점
- ④ 효용론적 관점
- ⑤ 종합주의적 관점

22. 이 시에 대한 보기의 글을 읽고, 밑줄 그은 부분이 가장 잘 형상화된 연을 다음 중에서 찾아보시오.

보기

그러다가 세속적 번뇌를 초월하여 자기 정화에 이르고자 하는 염원이 표현되고, 마침내 하염없는 법열이 표상되는 말미의 춤사위에 이르기까지, 뿌리고 제치고 엮는 장삼의 사위가 가히 정중동(正中動)의 극치를 보여 준다.

- ① 1연
- ② 3연

- ③ 5연
- ④ 7연
- ⑤ 8연

23. 이 시를 영상으로 담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즈넉한 산사 뜰을 배경으로 한다.
- ② 승무를 추는 승려는 젊은 여승으로 한다.
- ③ 승려의 심리보다 유장한 춤동작을 강조한다.
- ④ 한밤의 정적 속에 귀뚜라미 소리를 넣는다.
- ⑤ 승려의 눈물을 클로즈업한다.

<원광고>

24. <보기>의 관점에서 위 시를 감상한다고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독자는?

보기

효용론: 독자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삶에 대한 다양한 간접 체험을 하며, 자기의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삶에 대한 지혜를 얻기도 한다.

- ① 현실의 모순을 알면서도 순응하며 살아가며 자책하는 사람
- ② 현실적인 목표가 아직도 멀다고 생각하고 세월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
- ③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삶에서 문득 회의를 느끼는 사람
- ④ 지향하는 삶은 있으나 세속적인 번뇌로 인해 갈등을 겪는 사람
- ⑤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

25.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시간은?

- ① 19~21시
- ② 23시~1시
- ③ 3시~5시
- ④ 9시~11시
- ⑤ 13시 15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梧桐)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26. ㉠~㉡ 중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연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위 시에서 주제를 유추할 수 있는 시행을 찾아 쓰시오.

28. ①~⑤ 중, 이 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먼저 초고에 있는 서두의 무대 묘사를 뒤로 미루고 직접적으로 ①춤추려는 찰나의 모습을 그릴 것, 그 다음 ②무대를 약간 보이고 다시 이어서 휘도는 춤의 곡절(曲折)로 들어갈 것, 그 다음 ③움직이는 듯 정지(靜止)하는 찰나의 명상(冥想)의 정서를 그릴 것, ④관능(官能)의 샘솟는 노출을 정화시킬 것, 그 다음 ⑤유장한 취타(吹打)에 따르는 의상의 선을 그리고, 마지막 춤과 음악이 그친 뒤 교교(翹翹)한 달빛과 동터 오는 빛으로써 끝맺을 것.

29. 다음 중 위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으로 내면적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  
② '나빌레라'는 '나비'와 같구나의 뜻이다.  
③ 우리말의 섬세한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다.  
④ '별빛'은 번뇌의 서러움을 극복한 종교적 승화로 나타낸다.  
⑤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는 생동감 있는 빠른 춤 동작이다.

30. 이 시에서 처음과 마지막 연에서 같은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아닌 것은?

- ① 의미의 강조  
② 회화성 강조  
③ 감동적 여운  
④ 시적 안정감  
⑤ 음악적 마무리

31. 승무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밑줄 그은 부분이 가장 잘 형상화된 부분을 찾아 쓰라.

보기

붉은 가사에 장삼을 걸치고, 백옥 같은 고깔과 버선코가 유난히도 돋보이는 차림으로, 염불·도드리 타령 등 장단의 변화에 따라 일곱 마당으로 구성되는 춤을 춘다. 초장의 춤사위는 신음 하듯 번민하듯 움틀거리는데, 이는 수행의 어려움과 파계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다가 세속적 번뇌를 초월하여 자기 정화에 이르고자 하는 염원이 표현되고, 마침내 하염없는 법열(法悅)이 표상되는말미의 춤사위에 이르기까지, 뿌리고 제치고 얹는 장삼의 사위가 가히 정중동(靜中動)의 극치를 보여준다.

32. 이 시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은 표기는 같아도 그 내용은 다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쓰라.

- 1) [답] ④
- 2) [답] ③ [해]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3) [답] ④
- 4) [답] ②
- 5) [답] ④ [해] 7연은 번뇌를 별빛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 6) [답] ⑤
- 7) [답] ②
- 8) [답] ② [해] 실제 모습과 달라서 서러운 것은 아니다.
- 9) [답] ⑤ [해] 화자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다.
- 10) [답] ④
- 11) [답] ④ [해] 춤을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 12) [답] ④
- 13) [답] ⑤ [해] 작품의 내용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을 찾는다.
- 14) [답] ⑤ [해] 시조의 율격은 3.4조, 4음보를 기본으로 한다.
- 15) [답] ②
- 16) [답] ⑤ [해] 시적 허용이 아닌 것을 찾는다.
- 17) [답] ④
- 18) [답] ①
- 19) [답] ⑤
- 20) [답] ② [해]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다.
- 21) [답] ③
- 22) [답] ③
- 23) [답] ③
- 24) [답] ④
- 25) [답] ②
- 26) [답] ④
- 27) [답] 번뇌는 별빛이라
- 28) [답] ④ [해] 관능적인 모습을 정화시키는 표현은 없다.
- 29) [답] ② [해] '나비이구나'의 뜻
- 30) [답] ③ [해] 수미상관법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는다.
- 31) [답]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 먼하늘 한개 별빛에 모도우고 복사꽃 고운뺨에 아롱질 듯 두방울이야 /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 32) [답] 첫 행은 승무를 추는 여승의 모습 중에서 시적 화자의 눈에 강한 인상을 준 것이 하얀 고깔임을 보여준다. 승무가 시작되고 춤을 추는 가운데 여승은 마음 속의 번민과 고뇌를 극복하여 법열(法悅)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뒤의 하얀 고깔은 이제 여승의 외모를 이루는 한 요소가 아니라, 번뇌를 이겨 내고 순수하게 정화된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그 밤의 승무의 불가사의한 선율을 안고 서울에 돌아오는 이듬해 늦은 봄까지 붓을 들지 못하고 지내 왔었다. 춤을 묘사한 우리 시가로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아직 없을 때이라 나에게 는 오직 우울밖에 가중되는 것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한 마디의 언어, 한 줄의 구상도 찾지 못한 때 막연한 괴로움에 싸여 있던 내가 승무를 비로소 종이 위에 올리게 된 것은 내 스무 살 되던 해의 첫여름의 일이다. 미술 전람회에 갔다가 김은호의 '승무도' 앞에 두 시간을 서 있는 보람으로 나는 비로소 무려 7, 8매의 스케치를 가질 수 있었다. 움직임의 미묘히 정지태로 포착한 이 한 폭의 동양화에서 리듬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발견이었으나, 이 그림은 아마 기녀의 승무를 모델한 성싶어 내가 찾은 인간의 애욕 갈등 또는 생활고의 종교적 승화 내지 신앙적 표현이 결여되어 그때의 초고는 겨우 춤의 외면적 양자(1)를 형성하는 정도의 산만한 언어의 나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잡지 못해 애쓰던 어떤 윤곽을 잡을 수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이 초고를 몇 날 만지다 그대로 책상에 버려둔 채 환상이 가져오는 이른바 시수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 승무로 인하여 떠오르는 몇 개의 시상을 아낌없이 희생하기까지 하였으나 중시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나는 용주사의 춤과 김은호의 그림을 연결시키고도 왜 시를 형성하지 못했는가? 이는 아직, 춤을 세밀하게 묘사하면 혼의 흐름의 표현이 부족하고 혼의 흐름에 치중하면 춤의 묘사가 죽는, 말하자면 내용과 형식, 정신과 육체, 무용과 회화의 양면성을 초극(2)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초극하고 한 편 시를 만들기는 또다시 몇 달이 지난 그해 10월 구왕궁(舊王宮) 아악부(雅樂部)에서 '영산회상(靈山會相)'의 한 가락을 듣고 난 다음 날이었다. 아악부를 나서면서 나는 몇 개의 플랜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시를 이루는 골자가 되는 것이다.

A[먼저, 초고에 있는 서두의 무대 묘사를 뒤로 미루고 직접적으로 춤추려는 찰나의 모습을 그릴 것, / 그다음, 무대를 약간 보이고 다시 이어서 휘도는 춤의 곡절로 들어갈 것,

그다음, 움직이는 듯 정지하는 찰나의 명상의 정서를 그릴 것, 관능의 샘솟는 노출을 정화시킬 것, / 그다음, 유장한 취타(吹打)(3)에 따르는 의상의 선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춤과 음악이 그친 뒤 교교(4)한 달빛과 동터 오는 빛으로써 끝막을 것.] (중략)

오래 앞던 작품을 완성하였을 때의 즐거움은 컸다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처음 의도에 비해서 너무나 모자라는 자신의 기법에 서글픈 생각이 그에 못지않게 컸던 것도 사실이다. 어떻든 구상한 지 열한 달, 집필한 지 일곱 달 만에 겨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로써 나의 '승무'의 비밀은 끝났다. 써 놓고 보니 이름 모를 승려의 춤과 김은호의 그림과 같으면서도 다른 또 하나의 승무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이 춤은 내가 춘 승무에 지나지 않는다. 춤추는 승려는 남성이더랬는데 나는 이승(尼僧)(5)으로, 그림의 여성은 장삼(6) 입은 숙녀(俗女)였으나 나는 생활과 예술이 둘 아닌, 상징으로서의 어떤 탈속한 여인을 꿈꾸었던 것이다. 무대도 나중에는 현실 아닌 환상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곧 이 승무는 나의 춤이 되는 까닭이 된다. 그때 어떤 선배는 나의 시에서 언어의 생략을 충고하였으나, 유장한 선을 표현함에 짚고 가벼운 언어만으로써는 도저히 뜻할 수 없어 오히려 리듬을 위해서는 부질없는 듯한 말까지 넣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한 해조(諧調)(7)를 이루는 빈틈없는 부연은 생략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절실히 느꼈다.

(어휘 풀이)

- (1) 양자(樣姿): 겉으로 나타난 모양이나 모습.
- (2) 초극(超克): 어려움 따위를 넘어 극복해 냄.
- (3) 취타(吹打): 관악기를 불고 타악기를 침.
- (4) 교교(皎皎): 달이 썩 맑고 밝은.
- (5) 이승(尼僧): 여자 승려.
- (6) 장삼(長衫): 승려의 옷.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듦.
- (7) 해조(諧調): 잘 조화됨.

지문 연구

주제: '승무'라는 작품의 창작 과정과 자평

구성

- \* 기: '승무'를 쓰게 된 동기
- \* 승: '승무'를 구상한 과정
- \* 전: '승무'를 실제 집필한 과정
- \* 결: '승무'에 대한 주변의 평가와 자신의 의견
- 여기에 실린 부분은 승, 전, 결에 해당한다.
- 감상 포인트
- \* 작품의 구상 과정을 파악하며 읽는다.
- \* 작품의 실제 집필 과정을 이해하며 읽는다.
- \* 작품에 대한 작가 자신의 평가를 파악하며 읽는다.

1. 글쓴이가 '승무'를 완성하는 과정을 (보기)처럼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용주사에서 승무를 봄. → ㉡ 김은호의 '승무도'를 봄. → ㉢ 구왕궁 아악부에서 '영산회상'을 들음. → ㉣ '승무'를 완성함.

- ① ㉠에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았다.
- ② ㉡의 감동이 ㉢를 통해 초고로 옮겨지게 되었다.
- ③ ㉢에서 기대했던 특정한 인상을 보게 되었다.
- ④ ㉣에서 춤의 세부적 묘사와 정신의 조화로운 표현이라는 ㉢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 ⑤ ㉣ 이후에도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다.

2. A를 참고하여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네라 //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빈 대(臺)에 황촉(黃燭) 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듯 날아가며 사뿐이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네라.  
 --조지훈, '승무(僧舞)'

① 여승이 춤추기 직전의 모습은 여승의 고깔, 머리, 볼 등을 위주로 형상화하고 있군.

② 무대를 형상화한 부분에서 공간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배경도 나타내고 있군.

③ '소매'와 '외씨보선'을 중심으로 여승이 승무를 추는 동작을 형상화하고 있군.

④ '복사꽃 고운 뺨'과 '아롱질 듯 두 방울'이라는 구절을 통해 관능의 노출과 종교적인 승화를 형상화하고 있군.

⑤ 무대 묘사를 처음에 형상화하지 않은 것은 시인의 의도라고 할 수 있군.

3. 글쓴이는 자신이 쓴 '승무'에 군더더기의 표현이 들어 있음을 알고도 그 표현을 생략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1. ③    2. ④    3. 유장한 선이라는 리듬감을 표현하는 데 짧고 가벼운 언어만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해제: 이 글은 조지훈 자신이 '승무'를 쓰게 된 동기와 창작 과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작가는 승무를 보고 이를 작품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작품을 구상한 지 열한 달, 집필한 지 일곱 달 만에 '승무'를 완성하게 된다. 작가는 '승무'가 자신이 본 승무를 그대로 작품화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승무로 작품화하였다고 감회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승무라는 춤의 유장한 선을 표현하기 위해 부연적인 표현을 첨가하게 되었다는 평가까지 덧붙이고 있다.

## 1. 작품의 구상 과정에 대한 파악 (답) ③

글쓰는 김은호의 '승무도'를 보고 7, 8매의 스케치를 얻을 수 있었지만 글쓰기가 얻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애욕과 갈등 또는 생활고의 종교적 승화 내지 신앙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김은호의 '승무도'를 보고 이것을 얻을 수는 없었다.

오답 피하기

① '이리하여 그 밤의 승무의 불가사의한 선율을 안고 서울에 돌아온 나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때의 초고는 겨우 춤의 외면적 양자를 형성하는 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내가 이것을 초극하고 한 편의 시를 만들기는 또다시 몇 달이 지난 그해 10월 구왕궁 아악부에서 '영산회상'의 한 가락을 듣고 난 다음 날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유장한 선을 표현함에 짧고 가벼운 언어만으로써는 도저히 뜻할 수 없어 오히려 리듬을 위해서는 부질없는 듯한 말까지 넣지 않을 수 없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에는 젊은 여인으로서 갖는 관능이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종교적인 승화가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종교적인 승화가 형상화된 부분은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이다.

오답 피하기

① 1연과 2연은 여승이 춤을 추기 직전의 모습을 형상화한 부분이다. ② 3연에서 '빈 대'라는 공간적인 배경과 '밤'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③ 4연은 '소매'와 '외씨보신'을 중심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3연은 무대를 묘사한 부분인데, 이처럼 무대 묘사를 뒤에 형상화한 것은 시인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 3. 작품의 운율에 대한 이해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인 '어떤 선배는 나의 시에서 언어의 생략을 충고하였으나, 유장한 선을 표현함에 짧고 가벼운 언어만으로써는 도저히 뜻할 수 없어 오히려 리듬을 위해서는 부질없는 듯한 말까지 넣지 않을 수 없었다. 지연한 해조를 이루는 빈틈없는 부연은 생략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절실히 느꼈다.'에서 이유를 추리할 수 있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1)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 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어휘 풀이)  
(1) 박사(薄紗): 얇은 비단.

지문 연구

- 주제: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
- 구성
- \* 1~3연: 승무를 추기 전 여승의 모습
  - \* 4연: 승무의 무대 배경
  - \* 5연: 승무의 춤사위
  - \* 6~7연: 번뇌의 종교적 승화
  - \* 8연: 춤 동작의 경건함
  - \* 9연: 춤이 끝난 후의 정적감  
감상 포인트
  -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춤의 변화에 유의하며 읽는다.
  - \* 유음 '르'와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한 운율감을 이해하며 읽는다.
  - \* 우아하고 예스러운 어휘를 사용하여 고전적 분위기를 자아냄을 파악하며 읽는다.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안정감을 얻고 있다.
  - ㉡ 예스러운 시어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시선에 변화를 주며 춤추는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 춤을 추는 부분은 동작의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 (보기)의 ㉠~㉣ 중, ㉡의 발상 및 표현과 유사한 것은?

보기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넛줄이 / ㉠오랫동안 빼걱빼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나희덕, '땅끝'

- ㉠ ㉡ ㉢ ㉣ ㉤ ㉥ ㉦ ㉧ ㉨

3. 여승의 내면세계와 관련하여 주제가 집약된 시행을 찾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1. ④    2. ④    3. 주제가 집약되어 있는 시행은 7연의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이다. 그 시행은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를 의미한다.

\* 해제: 작가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춤의 시작과 끝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묘사하고 있다. 승무를 추고 있는 여승은 세속적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또한 예스러운 시어를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는 고전미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나빌레라', '서러워라', '외씨보선이여' 등 시 전체의 서술어에서 영탄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여승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첫 연의 두 행과 끝 연의 마지막 행이 서로 대응하고 있는 수미 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② '얇은 사', '외씨버선', '삼경', '이 밤사', '귀뚜라' 등의 예스러운 시어를 통해 고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③ '고깔 → 머리 → 불', '소매 → 외씨버선'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춤추는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⑤ '돌아설 듯 날아가며',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에서 춤추는 동작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2. 발상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는 서로 모순된 의미를 지닌 시어를 배치하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보기)에서 ㉠ 역시 '위태로움'과 '아름다움'이라는 모순된 시어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역설적 표현이다.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 (보기)의 화자는 절망 속에서 찾아낸 긍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 나희덕, '땅끝'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출발한 작품으로서, '땅끝'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느끼는 삶에 대한 절망감과 '땅끝'에서 얻은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땅끝'은 육지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시구의 의미 파악

여승이 눈동자를 들어 별빛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별빛'은 해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승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아직 세속적 번뇌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별빛'은 여승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따라서 7연의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라는 시행에 주제가 집약되어 있고, 그 의미는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라고 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뜨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황촉불'과 기우는'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2. (가)를 분석했을 때, 그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체로 4음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미 상관의 구성을 지니고 있다.
  - ② 불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며 선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분위기가 드러난다.
  - ③ 시적 화자는 자기의 슬픈 감정을 우아한 어조를 통하여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다.
  - ④ 역설적 표현과 관능적 표현으로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가 조화된 정중동 이미지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1. ㉔ 2. ㉓

1. 1단계 : <보기>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빛의 속성과 함께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작품 속 여러 빛은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 등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단계 :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은 여러 빛으로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있으며, '상승 이미지'도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3단계 : '흐르는 빛'은 승무를 추는 무녀의 모습이 '정작으로 고와서' 화자를 서럽게 만들고 있는 빛이다. 환상적인 분위기보다는 애련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으며, '두 볼에 흐르는 빛'이기 때문에 상승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

정답 ㉔

## 2. 작품의 종합적 감상과 이해

(다)의 시적 화자는 작품 밖에서 승무를 구경하는 관찰자이므로 시적 화자의 감정이 표출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㉑ 4음보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첫 연과 마지막 연의 구성이나 행은 다르지만 문장 구조나 의미는 유사하기 때문에 수미 상관으로 볼 수 있다.

㉒ '승무'가 불교적 소재이기 때문에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 있다.

㉔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는 역설법, '복사꽃 고운 뺨에'는 관능적 표현이다.

㉕ 춤추는 동작이 일시적으로 멈추다가 강렬해지며 결국 멈춤에서 끝나기 때문에 정중동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㉓